■ 민족문화연구 제112호(2026.0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235-267.
http://doi.org/10.17948/kcs.2026..112.235

신채호의 문체적 선택과 그 문체사적 의미*

최경봉(崔炅鳳)**

목 차

1. 머리말
2. 근대 초 이중적 문어 상황과 신채호의 문체적 선택
3. 이중적 문어 체계의 단일화와 신채호의 문체적 선택
4. 마무리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근대 문체사를 국문과 국한문의 이중적 문어 상황을 조성한 후 이를 단일 문어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이라 전제하고, 이러한 전환 국면에서 신채호의 문체적 선택이 갖는 문체사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신채호의 어문관, 이중적 문어 상황에 대응하는 문제의식, 이중 문어 체계를 극복하기 위한 단일 문어 구상 등을 구체화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본고는 두 가지를 밝혔는데, 첫째는 신채호가 국문과 국한문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염두에 두고 보통 문체로서 근대적 국한문을 구상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중 문어를 단일화하는 방안으로 국문 문체에 한자를 섞어 쓰는 현대적 국한혼용문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체사의 변곡점에서 이루어진 신채호의 문체적 선택, 즉 유길준의 문법적 국한문이 아닌 한문의 전통적 격식을 유지하는 국한문의 선택, 이중적 문어 상황에서 국문과 국한문의 의식적 선택, 문어의 단일화 국면에서 국문 문체에 한자를 섞어 쓰는 현대적 국한혼용문의 선택 등이 궁극적으로 문장의 자연스러움과 현실의 요구를 조화하는 문체적 선택이었음을 밝혔다.

* 이 논문은 2026학년도 원광대의 교비지원에 의해 수행됨.
** 원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제어: 국문, 국한문, 근대 문어, 문체, 유길준, 한글전용론, 한자혼용론

1. 머리말

본고에서는 근대 문체의 전환 국면에서 신채호의 문체적 선택이 갖는 문체사적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문필가였던 신채호의 어문 사상과 그가 근대 문체의 정립 과정에 끼친 영향을 밝힌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신채호의 문체적 선택이 이루어진 맥락을 통해 근대 문체의 전환 동인을 구체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관련 논의가 정교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근대 초에 조성된 국문과 국한문의 이중적 문어(文語) 상황에 대한 이해와 이중적 문어 상황을 극복하고 단일 문어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신채호의 문체적 선택과 관련한 논의가 단선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반성에 맞닿아 있다.

지금까지 신채호의 문체적 선택은 근대적 국한문의 유형을 구체화하는 논의에서 주목받은 바 있지만, 이를 신채호의 문체적 지향과 구상을 밝히는 논의로 진척시킨 경우는 드물다. 이런 상황에서 신채호의 문체적 지향과 구상에 대한 논의는 국한문 유형 논의와 단절된 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관련 논의를 단순화한 측면이 있다.

한 예로, 신채호가 소설 창작에서 선택했던 한글 글쓰기를 “한글이 당대 시대가 요청하는 민족통합에 적합한 문자체계라는 언어의식을 문학에 적용한 결과”[1]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신채호의 어문관에 대한 서술, 즉 신채호가 “한민족과 한글을 동일 개념으로 인식했다”[2]는 서술의 근거로 삼는 논의에서 단선적 접근의 위험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한글’을 절대화하는 어문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신채호의 어문관을 규정하게 되면, 국한문으로 대부분

1) 김희주, 「신채호의 문학에 적용된 이중 언어의식 연구」, 『어문논집』 82, 민족어문학회, 2018, 179면.
2) 김희주, 위의 글, 185면.

의 문필 활동을 했던 신채호가 근대 문어의 정립 과정에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임했는지를 논의할 여지는 없어진다.

그렇다면 신채호의 문체적 선택이 갖는 문체사적 의미를 밝히는 논의에서는 근대 초의 이중적 문어 상황을 전제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신채호가 이중적 문어 상황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구체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한글 및 한자와 관련한 신채호의 어문관을 구체화하는 것이고, 셋째는 이중적 문어 체계를 단일화하는 국면에서 신채호의 단일 문어 구상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의 논의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2장에서는 근대 초 이중적 문어 상황이 국문과 국한문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전제한 것임을 밝히면서, 국한문 및 한글 글쓰기와 관련한 신채호의 문제의식을 파악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채호가 유길준이 제안했던 문법적 국한문 모델을 외면해야 했던 이유를 그의 문체적 지향과 관련하여 설명할 것이다. 3장에서는 이중적 문어상황을 극복하고 단일 문어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신채호의 구상이 "國語로 爲主ᄒᆞ고 漢字ᄂᆞᆫ 若干助入ᄒᆞ야 老嫗도 可解"[3]할 수 있는 문어를 구축하는 데 있었음을 밝히면서, 그러한 구상의 문체사적 의미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2. 근대 초 이중적 문어 상황과 신채호의 문체적 선택

1) 근대 초 어문개혁에서 신채호의 문제의식

신채호의 어문 사상을 가늠할 논설로 주목받아온 것은 『대한매일신보』(1908.3.17.-19.)에 3회에 걸쳐 실린 「國漢文의 輕重」이다. 한문을 중히 여기고 국문을 경시하여 국수(國粹)를 매몰하는 상황을 비판하는 이 논설은 신채호의 어문민족주의적 신념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

3) 「天喜堂詩話」, 『대한매일신보』, 1909.11.16.

(1) 雖黃口小兒라도 皆曰國문이 重ᄒᆞ다 國文이 重ᄒᆞ다ᄒᆞᆯ지어ᄂᆞᆯ (…) 其輕重이 如此雷壤懸絶ᄒᆞᆫ 國漢문을 今乃幾個癡人이 謬見妄執으로 (…) ①國문은 漢문 附屬品에 不過ᄒᆞ다고 大ᄠᅡᆨᄒᆞᆫ 者도 有ᄒᆞ며 (…) 三國以後로ᄂᆞᆫ 幾乎家家에 ᄒᆞᆫ문을 儲ᄒᆞ며 人人이 ᄒᆞᆫ문을 讀ᄒᆞ야 ᄒᆞᆫ官威儀[4]로 國粹를 埋沒ᄒᆞ며 (…) ②堂堂大朝鮮을 他國의 一附庸屬國으로 反認홈으로 奴性이 充滿ᄒᆞ야 奴境에 長陷하얏거ᄂᆞᆯ 今日에 坐ᄒᆞ야 尙且③國문을 ᄒᆞᆫ문보다 輕視ᄒᆞᄂᆞᆫ 者 有ᄒᆞ면 此亦韓人이라 云ᄒᆞᆯ가 自國의 言語로 自國의 文字ᄅᆞᆯ 編成ᄒᆞ고 自國의 문字로 自國의 歷史地誌를 纂輯ᄒᆞ야 全國人民이 捧讀傳誦ᄒᆞ여야 其固有ᄒᆞᆫ 國精을 保持ᄒᆞ며 純美ᄒᆞᆫ 愛國心을 鼓ᄇᆞᆯᄒᆞᆯ지어ᄂᆞᆯ (…) 然則今日에 坐ᄒᆞ야 尙且④國문을 漢文보다 輕視ᄒᆞᄂᆞᆫ 者 有ᄒᆞ면 是亦韓人이라 云ᄒᆞᆯ가 (신채호, 「국한문의 경중(輕重)」, 『대한매일신보』, 1908.3.17.-19.)

김희주[5]는 위 글에서 (1③, ④)에 반복된 '한문보다 국문을 경시하는 자는 한국인이 아니다'란 말에 주목하면서, 신채호가 "한민족과 한글을 동일 개념으로 인식했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김병문[6]은 (1②)처럼 '국문'과 '한문'의 선택 문제를 '주인이 될 것인가 노예가 될 것인가'를 가르는 문제로 치환하고 있는 언급에 주목하면서, 신채호가 '국문의 사용 문제'를 "현실적 손해와 이익의 문제"를 넘어 "국가 혹은 민족적 고유 사상이나 정신의 문제"로 끌어올렸음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김희주와 김병문의 논의는 그 목적하는 바가 다름에도,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라는 신채호의 민족주의적 역사관에 '국문'과 '한문'을 대입하여 신채호의 어문 사상을 설명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서 '국문'과 '한문'의 대립을 '한글'과 '한자'의 대립으로까지 확대하는 논의 틀로는 첫째, 신채호가 '한문'과 '한자'의 차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설명하기 어렵고, 둘째, 신채호가 '국문'과 '한문'의 관계를 배제적 선택이 아닌 경중(輕重)의 문제로 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설명하는 논의는 신채호의 어문 사상과 신채호의 문체적 선택이 갖는 의미를 새롭게 파악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

4) 漢官威儀: 한문의 권위와 형식을 숭상한다는 비유적 표현.
5) 김희주, 위의 글, 185면.
6) 김병문, 「신채호의 고대사 기술에 사용된 언어학적 방법론 검토 - 조선사연구초와 조선상고사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9, 2020, 201-202면.

이때 이 논의가 효율적이고 정교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대 초의 이중적 문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최경봉[7]은 근대 초의 문어 상황을 '국문'과 '국한문'으로 이루어진 이중적 문어 상황으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문어 상황이 '한문(漢文)'과 '언문(諺文)'으로 이루어졌던 전근대의 문어 체계가 와해되며 조성된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때 '한문'이 퇴출된 후 형성된 근대 초의 이중적 문어 상황에서 '국문'과 '국한문'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전근대 문어 상황에서 '언문'의 범위에 대한 인식과 맞물려 있다.

한문의 퇴출로 전근대의 문어 체계가 와해된 상황에서 근대적 문어를 모색하던 유길준은 칠서언해의 언해문에 주목하였는데, 칠서언해의 언해문은 한문 속 한자를 우리말 구조에 따라 재배열해 언해한 언한문(諺漢文)으로, 교화서의 언해문 및 소설의 순언문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처럼 '언해문'의 문체적 스펙트럼이 넓었다면, 이는 결국 한문과 언문의 이중적 문어 체계에서 '언문'의 범위가 '순언문'과 '언한문'을 포괄하는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근대 초 '국문'과 '국한문'의 관계는 대립보다는 상보적 관계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언문일치를 어문개혁의 과제로 삼았던 유길준이 칠서언해의 언한문을 참조하여 근대적 문어를 구상했던 것에서도 국문과 국한문의 관계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1)에서 '한문'과 대립적인 '국문'은 문자로서 '한글'만이 아니라 국한문을 포함하여 한글을 사용한 문장을 함께 가리킨다고 해야 할 것이다. '국문'의 용법이 문자로서 '한글'을 가리키는 데 국한되지 않았음은 근대 초 어문연구자들의 글에서 확인된 바이다.

(2) ㄱ. 만약 타국 문자를 빌려 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어서 그러하지 않으니 오직 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글을 이룰 따름이다. 순전히 국문을 사용하는 데 이르는 것은 혹 백년 이후의 시대에나 있을 것이다.[8] (이능화, 「국문일정의견」, 『대한자강회월보』 6, 63면)

---

7) 최경봉, 「근대적 문어 양식의 성립과 국한문의 규범화」, 『국어학』 94, 국어학회, 2020, 27-65면
8) 若以借用他國文爲可耻則不然ᄒᆞ니 唯在利用以成我國之文耳라. 至於純用國文ᄒᆞ야ᄂᆞᆫ 或在於百年以後之時代也로다.

ㄴ. 且夫吾人이 漢字를 借用홈이 已久ᄒᆞ야 其同化ᄒᆞᆫ 習慣이 國語의 一部를 成ᄒᆞ야시니 苟其訓讀ᄒᆞ는 法을 用ᄒᆞᆫ 則其形이 雖曰漢字이나 卽吾國文의 附屬品이며 補助物이라 英人이 羅馬字를 取ᄒᆞ야 其國語를 記홈과 同ᄒᆞ니 漢字取用ᄒᆞᆫ 緣由로 誰人이 敢히 大韓國語를 指ᄒᆞ야 漢文이라ᄒᆞ리오. (유길준, 「소학교육에 대한 의견」, 『황성신문』, 1908.6.10.)

이능화는 (2ㄱ)에서 '한자'를 이용해 쓴 '우리나라의 글'(我國之文)로서의 '국문'과 문자인 한글로서의 '국문'을 함께 언급하고 있으며, 유길준은 (2ㄴ)에서 '국문'을 국어를 기록한 글로 보면서 국어에 동화된 한자를 국문의 부속품이며 보조물로 규정했다. 이능화와 유길준의 글은 결국 한글만으로 '국문'을 쓰는 것은 먼 훗날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국어를 기록하는 현실적인 방안은 '한자를 포함한 국문', 즉 '국한문'을 쓰는 것이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국문'의 의미를 문자로서의 한글에 국한하지 않는다면, (1)의 서술 내용에서 주목할 것은 (2ㄴ)의 밑줄 친 부분, 즉 "형태가 비록 한자이나 우리 국문의 부속품이며 보조물"이란 말이 밑줄친 (1①), 즉 "국문은 한문 부속품에 불과하다"는 말과 대비된다는 사실이다. 한자를 국문의 부속품으로 보는 관점과 국문을 한문의 부속품으로 보는 관점은 근대 초 한문을 공적 문서에서 퇴출시킨 후 나타난 대조적인 글쓰기 양상을 보여주는데, 전자가 유길준이 제안한 근대적 국한문이고, 후자는 한글 토를 사용한 구결식 국한문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신채호가 후자의 글쓰기 방식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신채호의 어문관은 유길준의 어문관과 연결되는 면이 있다.

한문 퇴출이 시대적 과제인 상황에서 이처럼 '한문'과 '한자'를 구분하는 인식은 근대적 국한문의 글쓰기 모델을 만드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안확이 1910년, 1917년, 1922년 각각 저술한 조선어 문법서에서, 일관되게 한자와 국어의 분리할 수 없는 관계성을 피력한 것은 근대 어문개혁이 한자의 역할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3) ㄱ. 我國은 從來로 漢文을 借用ᄒᆞ야 漢字가 國語로 同化됨에 因ᄒᆞ야 文學上 此를 混用ᄒᆞᆷ이 多ᄒᆞᆫ 故로 本書 文章論에ᄂᆞᆫ 此를 依ᄒᆞ야 漢字ᄅᆞᆯ 混用ᄒᆞᆷ. (안확, '범례', 『중등교육 대한문법』, 1910)

ㄴ. 朝鮮文法에 對하야 純諺文을 쓰지 안코 漢字를 混用함이 不當한 듯하나 本來 朝鮮文學의 形式이 貴族的/平民的 卽 純漢文/純諺文 兩種으로 分立하얏다가 現今에 至하야는 此 階級을 打破하고 混用으로써 普通文体를 作한지라. 故로 本書의 体도 此를 採用치 안이키 不可하여 如是 混用하노라. (안확, '저술요지', 『조선문법』, 1917)

ㄷ. 其中 言과 文을 同一케 함은 文法의 目的을 行함의 第一 容易한 方法이니 고로 吾人이 恒常 文을 書함에 對하야 此를 크게 注意하지 안 하면 안 될 것이라. 그런데 近日에는 漢字를 混用함은 自然의 事이나 古語를 使用함은 言文一致를 要求함의 大違되는 事라 하노라. (『수정 조선문법』, 1922: 136)

안확은 한자를 혼용해 기술한 조선어 문법을 부당하게 느끼는 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지적하며, 글쓰기에서 한자를 혼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국한문이 언문일치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부합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런 맥락에서 안확은 모두가 쉽게 쓸 수 있는 '순국문'이 아니라 한자를 섞어 쓰는 '국한문'을 (3ㄴ)처럼 사회적 통합을 위한 '보통문체'로 내세웠다. 여기에서 귀족적 글인 한문을 퇴출하고 평민적 글인 순언문의 수준을 향상시킨 국한문이 '보통문체'로서 계급사회의 타파라는 근대적 개혁에 부합한다는 안확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통문체'의 확립은 보통교육의 확대와 맞물리는 과제가 된다. 지석영이 『언문』(1908)의 서문에서 국한문교작법을 언문일치의 방안으로 강조하면서 "한ᄌᆞ(漢字)를 약간(略干)만 통(通)하면 능(能)히 전편문의(全篇文義)를 히득(解得)하니 실(實)로 교육상(教育上) 뎨일(第一) 편이(便易)한 방법(方法)이로다."라고 한 것도 안확의 구상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 보통교육의 확대를 전제한다면, 국한문은 대중적 글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국한문에 대한 지석영과 안확의 생각은 당대 대다수 지식인들의 생각과 일치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자기 나라의 언어로 자기 나라의 문자를 편성하고 자기 나라의 문자로 자기 나라의 역사와 지지(地誌)를 편찬하여 전국 인민이 받들어 읽고 입에서 입으로 전하고 외어야 그 고유한 국정(國精)을 보존 유지하며 순미(純美)한 애국심을 북돋아 발휘할 것”이라 했던 신채호가 국한문 글쓰기를 선택했던 이유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신채호는 1920년대 중반까지도 우리글의 발전을 강조하는 조선어학자들의 절규가 곧바로 실현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였다.

> ⑷ 最近에 와서 一般 朝鮮文法의 學者들이 우리글의 發達을 絶叫하나 그러나 各國 文學의 進步는 매양 多數한 作家가 나서 全 社會를 鼓舞할 만한 詩나 小說이나 劇本이나 其他 各種 文藝作品이 만하 이로써 울고 웃고 노래하고 춤추어 飢者의 糧이 되며 病者의 藥이 되야 自家文學의 獨立國을 建設할 만한 然後의 일이니 近日에 作家로 칠 作者가 멧치이냐? 아으. (신채호, 「朝鮮古來의 文字와 詩歌의 變遷」, 『동아일보』, 1924.1.1.)

신채호가 ‘우리글의 발달’과 ‘문학의 진보’를 연동시킨 후, ‘문학의 진보’는 자가문학의 독립국을 건설한 연후의 일이라고 판단한 것은 1920년대까지도 ‘자가문학의 독립국’을 건설할 토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때 ‘일반 조선문법의 학자들’은 1921년 설립한 조선어연구회(조선어학회의 전신)의 학자들을 가리킬 것이며, 그들이 절규하는 ‘우리글의 발달’은 ‘한글의 발달’일 것이다.

이처럼 1920년대 중반까지도 우리글의 발달을 이룰 토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면, 대한제국 시기에 한글만으로 국민 계몽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신채호가 국문과 국한문의 이중적 문어체계를 현실적 대안으로 본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04년 국문 신문으로 창간한 『대한미일신보』를 1905년 국한문 신문으로 전환했다가 1907년 국문 신문과 국한문 신문을 함께 발행하기로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은 당시 어문 상황이 국민 통합을 위한 이중적 문어 체계를 요구했음을 말해준다.

다만 신채호가 '국문'과 '한문'의 관계를 왜 배제적 선택이 아닌 경중(輕重)의 문제로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문'의 해체를 선언한 근대 어문개혁에서 '한자'의 혼용이 필요하다고 본 것과 별개로, '국문'과 '한문'의 관계는 경중의 문제가 아닌 한문을 배제하는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채호는 왜 '국문'이 '한문'보다 중하다고 하여, 이 둘의 관계를 비중의 문제로 보게 되었을까? 이 지점에서 신채호가 '한문' 전통을 대하는 관점이 유길준이나 안확 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임상석[9]은 유길준이 문법적 일관성을 갖춘 국한문체 작문법을 고안하여 한문 산문의 전통적 체격과 장르에서 벗어난 형태의 글쓰기를 추구한 반면, 신채호, 장지연, 박은식 등의 계몽기 논객들은 한문 산문의 격식을 따르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임상석의 논의는 신채호가 국문과 한문을 배제적 선택 관계가 아닌 경중(輕重)의 관계로 다룬 데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 신채호가 국한문 글쓰기에서 일정 부분 한문 산문의 격식을 따랐다면, 한문을 완전히 배제하는 선택보다는 국문을 중심에 놓고 한문의 문체를 활용하는 선택을 하려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채호가 근대 어문개혁에서 부상한 근대적 국한문체와 관련하여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묻고 답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2) 신채호의 근대적 국한문체 구상

아래 제시한 글은 근대 어문개혁에 대한 신채호의 생각을 구체화한 것으로, 근대적 국한문체와 관련한 문제의식과 구상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에서 자주 인용된 바 있다.

---

9) 임상석, 「유길준의 국한문체 기획과 문화의 전환: 신채호, 최남선과의 비교연구」, 『우리어문연구』 43, 우리어문학회, 2012, 441-466면.

(5) 國漢字交用의 議가 起ᄒᆞ야 十餘年來 新聞 雜誌에 此道를 遵用ᄒᆞᆷ이 已久ᄒᆞ나 然ᄒᆞ나 其 文法을 觀ᄒᆞ건ᄃᆡ 或 ①漢文文法에 國文吐만 加ᄒᆞᄂᆞᆫ 者도 有ᄒᆞ며 (一) 或 國文文勢로 下ᄒᆞ다가 突然히 漢文文法을 用ᄒᆞ고 (二) 或 漢文文勢로 下ᄒᆞ다가 突然히 國文文法을 用ᄒᆞᄂᆞᆫ 者도 有ᄒᆞ야

譬컨ᄃᆡ 「學而時習之不亦悅乎」一句를 譯ᄒᆞᆷ에 或曰 「學而時習之면 不亦悅乎아」ᄒᆞ니 此ᄂᆞᆫ 壹에 屬ᄒᆞᆫ 者오 或曰 ②「學ᄒᆞ야 此를 時習ᄒᆞ면 不亦悅乎」ᄒᆞ니 此ᄂᆞᆫ 二에 屬ᄒᆞᆫ 者라.

③同一ᄒᆞᆫ 事項 同一ᄒᆞᆫ 句語를 五人이 敍述ᄒᆞᆷ에 十人이 不同ᄒᆞ야 文法의 離奇ᄒᆞᆷ이 名狀키 難ᄒᆞ니 噫라 此가 비록 細事인 듯ᄒᆞ나 其實은 著者가 此를 由ᄒᆞ야 其心이 荒ᄒᆞ며 讀者가 此를 由ᄒᆞ야 其腦가 眩ᄒᆞ고 抑彼靑年學文者ᄂᆞᆫ 筆을 操ᄒᆞᄆᆡ 所從의 途를 莫知ᄒᆞ리니 其害가 豈小ᄒᆞ리오.

故로 今日에 文法統一이 卽亦一大急務라 此를 統一ᄒᆞ여야 學生의 精神을 統一ᄒᆞ며 國民의 智識을 普啓ᄒᆞᆯ지어ᄂᆞᆯ (신채호, 文法을 宜統一, 『기호흥학회월보』 제5호, 1908.)

(5③)은 근대 어문개혁에 대한 신채호의 문제의식을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이 문제의식은 주시경이 『국어문법』(1910)의 서문에서 "글자마다 같지 않고(書書不同) 사람마다 다르게 쓴다(人人異用)"라고 하면서 문법적 규범화를 강조했던 문제의식과 맥을 같이 한다. 국한문의 규범화에 대한 신채호의 문제의식과 국문의 규범화에 대한 주시경의 문제의식은 근대 어문개혁의 방안이 국문과 국한문의 이중적 문어 상황을 전제로 모색되었음을 말해준다. 다만 국문의 규범화에 비해 국한문의 규범화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지만, 국한문 글쓰기가 더 일반적이었던 근대 초의 상황에서, 국문과 상보적으로 병존할 수 있는 국한문의 규범화 방안을 제안하는 일 역시 절박한 문제였다. (5)는 그러한 시대적 요구를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어문법에 따라 쓰는 것이 근대적 국한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5①)의 (一)은 한문 문법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대적 국한문이라기보다는 구결문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글쓰기는 신채호가 (1①)에서 비판했던 "국문은 한문 부속품에 불과하다고 부르짖는 자"의 글쓰기다. 따라서 신채호가 (5③)에서 문제시했던 국한문의 형식적 난맥상은 구시대의 잔재와 근대적 모색이 혼재된 상황을 뜻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한문의 규범화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5①)의 (二), 즉 부분적으로 한문 문법이 드러나는 국한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신채호가 국한문의 문법적 통일을 강조했음에도 한문 문법을 어디까지 수용하여 국한문을 쓸 것인지에 대해 명쾌한 경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신채호는 칠서언해의 언해문을 참고해 국어 문법에 따른 근대적 국한문의 모델을 명쾌하게 제시했던 유길준을 따르지 않았다. 유길준은 "不亦悅乎"와 같은 한문구가 습관적으로 포함될 수 있었던 당시의 현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 (6) 今에 國漢字交用ᄒᆞ는 書에 錯節體法[10]을 用ᄒᆞ면 是ᄂᆞᆫ 文을 不成ᄒᆞᆷ이 漢文에 直節體法을 行ᄒᆞᆷ과 同ᄒᆞᆫ지라 是以로 音讀ᄒᆞ는 文이라도 此를 務避ᄒᆞ여야 可ᄒᆞ니 訓讀ᄒᆞᆫ 然後에 此弊가 自絶ᄒᆞᆯ지라… (유길준, 「小學敎育에 對ᄒᆞᄂᆞᆫ 意見」, 『황성신문』, 1908. 6. 10.)

국한문이 한문 문법을 벗어나야 함을 분명히 한 유길준의 문제의식은 일찍이 『서유견문(西遊見聞)』(1895)에서 보였던 문제의식과 상통하는데, 유길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學ᄒᆞ야 時로 習ᄒᆞ면 또ᄒᆞᆫ 說홉디 아니랴(율곡 논어언해)"와 "學ᄒᆞ고 時로 習ᄒᆞ면 또ᄒᆞᆫ 깃브디 아니ᄒᆞ랴 (논어언해)" 등 칠서언해의 언해문을 참조해 한문을 완전히 해체한 국한문을 『서유견문』에서 선보였다.[11] 그렇다면 신채호는 왜 유길준의 국문법적 국한문 모델을 외면했을까?

임상석은 그 이유를 "언중들의 습속으로는 『서유견문』과 같은 성격의 글보다는 익숙한 한문 산문의 체격이나 장르적 연관성을 갖춘 국한문체 저술이 더 쉽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또한, 급박한 정세 속에서 장편의 글을 읽고 있을 여유가 적었음도 쉽게 추측할 수 있다."[12]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때

10) 유길준은 중국어와 영어는 착절어(錯節語)로, 한국어와 일본어는 직절어(直節語)로 설명한다.
11) 『서유견문』이 칠서언해의 서사 방식을 본받았다는 것은 칠서언해의 불규칙한 국한문을 일관된 형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최경봉, 「근대적 문어 양식의 성립과 국한문의 규범화」, 『국어학』, 2020, 39-41.)
12) 임상석, 앞의 글, 462면.

신채호의 문체적 선택에 영향을 준 '언중(言衆)'은 한문의 습속을 유지하고 있는 지식인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하면 신채호를 비롯하여 한문의 습속을 유지한 지식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한문 해체라는 근대 어문개혁에 동참하면서도 익숙한 문체로 소통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신채호와 유길준이 전근대 문어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길준은 전근대의 문어 상황에서 '언한문(諺漢文)'이 '언문'의 한 유형으로서 유통되었다고 보고, 언한문, 즉 칠서언해의 언해문을 근대적 국한문으로 새롭게 규범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한문'의 퇴출과 '언문'의 국문화를 목표로 한 근대 어문개혁에서, 전근대적 '언한문'을 규범화한 '국한문'과 '순언문'을 규범화한 '순국문'의 이중적 문어체계를 구상했던 것이다. 이러한 유길준의 태도는 유길준이 전통의 계승과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근대 어문개혁에 임했음을 보여주는데, 앞서 (5)에서 볼 수 있듯이, 신채호 역시 전통의 계승과 극복의 관점에서 근대 어문개혁에 임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전근대 문어 상황에 대한 신채호의 판단은 그의 글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

(7) 우리의 쓰는 文字의 變遷을 三時期에 난울 수 잇스니 第一期의 吏讀文, 第二期의 口訣文, 第三期의 諺文이라 (…) 우리 文字가 이가치 三期의 變遷이 잇스나 그러나 國文이 난 뒤에 口訣이 廢止되고 口訣이 난 뒤에 吏讀文이 廢止된 것이 아니라 ①距今 不過 三十年 前까지 吏讀와 口訣이 幷存하야 論語나 孟子나 其他 漢文冊에 토를 달으랴면 口訣을 쓰고 官府에 올니는 呈訴文字에는 또한 吏讀를 석던 바라. (…) 대개 ②吏讀文은 三國, 東北國, 高麗 등 歷代의 國文이라 當時에 이로써 人名, 地名, 官名과 各種 詩歌를 記述할 쑨 아니라 歷史나 小說이나 其他 各種 文藝의 作品도 거의 吏讀文의 記述이 만엇슬지나 하나도 流傳되지 못하엿스니 (…) 世宗大王의 正音 字母는 吏讀에 比하면 그 音과 形이 完美할 쑨더러 그 學習이 더욱 便利하야 우리 文學의 勃興할 利器를 주엇스나 다만 漢文學의 征服을 바더 各種 글월을 모다 漢文으로 記하고 漢文만 文字로 알아 國文學發達의 前路를 막엇섯스며 (…) ③名文傑作을 차즈면 漢文作家에는 或 幾篇이 잇다하련이와 諺文에는 絶無하니 世宗大王의 制作한 恩德을 辜負함[13]이 또한 甚하도다. 아으. (신채호, 「朝鮮 古來의 文字와 詩歌의 變遷」, 『동아일보』, 1924.1.1.)

신채호는 (7①)과 같이 전근대의 문어 체계를 한문, 구결문, 이두문, 언문 등이 병존하는 체계로 보았으며, (7②)와 같이 과거 이두문이 문학 작품에까지 활발히 사용된 사실에 주목한 반면, (7③)과 같이 언문이 그 편리함에 비해 우리 문화의 발전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보면 신채호는 언해를 포함한 언문 문화를 우리 문화의 발전이란 맥락에서 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이라면, 신채호는 한문에 종속된 언해문을 우리의 정신을 표현하는 문장으로 볼 수 없었을 것이고, 이는 신채호가 유길준이 주목했던 칠서언해의 언해문을 현실의 문장으로 보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있다.

실제 칠서언해의 언해문이 현실의 문장이 아니라 경전 학습 혹은 경전 해석의 표준을 제시하기 위한 인공적 문장이었음은 이런 형식의 언한문이 칠서언해 이외에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유길준은 칠서언해의 문장을 규범화하는 과정에서 모든 실사를 한자 및 한자어로 대치하는 지극히 인공적인 국한문을 제시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한문의 규범화를 모색했던 신채호가 유길준의 문법적 국한문을 외면한 것은 유길준의 국한문 모델을 현실의 문장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유길준의 국한문 모델이 인공적 문장임은 단음절 한자에 'ᄒᆞ-'를 결합한 용언의 출현 빈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한영균(2013: 241)에서는 '是日也放聲大哭' 類 국한문에서 나타나는 '단음절 한자+ᄒᆞ-' 구성 용언의 텍스트 점유율이 '西遊見聞' 類 국한문의 그것보다 낮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14] 신채호가 국한문의 문법을 통일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유길준의 문법적 국한문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유길준이 제안한 국한문을 배제한 채 국한문을 국어문법에 맞게 규범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신채호는 (5)에서 한 문제 제

13) 고부하다(남의 호의나 기대 따위를 저버리다).
14) 단음절 한자에 'ᄒᆞ-'를 결합한 용언의 출현 빈도는 문체 현대화와 국한문의 자연스러움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다. 자연스럽고 현대적인 문장일수록 이 용언의 출현 빈도가 낮다.

기 이외에 별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신채호가 한문의 해체라는 어문 개혁의 과제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있었기에, 이중적 문어상황에서 그의 글쓰기 과정은 한문 문법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문장을 바꿔나가는 과정이 되었다.

(8) ㄱ. 今之伊太利ᄂᆞᆫ 古之羅馬也니 歐洲 南部에 突出ᄒᆞᆫ 半島國也라 (…) 僅是 地理上의 名詞로 若存實亡者ㅣ千餘年於玆矣라 (『伊太利建國三傑傳』, 1907, 廣學書舖)

ㄴ. 余ㅣ가 高句麗大臣乙支文德의 歷史를 讀ᄒᆞ다가 氣旺旺ᄒᆞ며 膽躍躍ᄒᆞ야 即仰天叫曰然歟然歟아 我民族의 性質이 乃如是歟아 (『乙支文德』, 1908, 廣學書舖)

ㄷ. 高句麗 渤海의 遺産을 賣盡ᄒᆞ야 一大奴隸地獄을 造成ᄒᆞ고 其中에 坐ᄒᆞ야 我ᄂᆞᆫ 君이라 ᄒᆞ며 爾ᄂᆞᆫ 臣이라 ᄒᆞ고 我ᄂᆞᆫ 官이라 ᄒᆞ며 爾ᄂᆞᆫ 民이라 ᄒᆞ고... (錦頰山人, 「偉人遺蹟, 東國巨傑 崔都統」, 『대한매일신보』, 1909. 12.9.)

(8ㄱ, ㄴ)에 제시한 국한문에 나타나는 특징은, 밑줄 친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한문의 문법형태소나 한문 구절을 써서 한문 문장의 격식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나 (8ㄷ)에서 볼 수 있듯이 1909년에 이르러서는 한문의 격식을 보이는 시도가 급격히 줄어든 글을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신채호의 말을 빌린다면, 국문 문세(文勢)를 강화하고 한문 문세를 줄이기 위한 모색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신채호는 (5) 이외에 국한문의 규범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힌 글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글쓰기를 통해 국문 문세를 강화하는 국한문 규범화의 구상을 구체화했던 것이다.

다만 인공적 문장이 아닌 현실의 문장으로 국한문을 규범화하고자 했던 신채호의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어가 된 한문 표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는 국어사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일이었다. 지석영은 『언문(言文)』(1909)의 서문에서 "젼국(全國) 동포(同胞)의 언ᄉᆞ(言辭)에 한문음

(漢文音)으로 힝용(行用)하야 인(因)이 국어(國語)된 것을 약약(略略) 됴사(調査)한 즉 일만구쳔여(一萬九千餘) 귀졀(句絶)"이라 하며 우리말화한 한자어 및 한문구[15]를 수집했음을 밝혔다.

『언문』의 발행은 당시 국어화한 한자어와 한문 표현을 공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팽배했음을 말해준다. 신채호는 국어화한 한문구를 포함한 조선어사전 편찬을 언급한 바는 없지만, 그가 주필로 관여했던 『대한매일신보』는 일찍이 사설을 통해 국어사전 편찬의 필요성과 그 방향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사문을 통해 어휘 단위를 의식하며 국문 문세로 일관하는 국한문을 제시하였다.

3) 이중적 문어 상황에서 한글 글쓰기의 의미

"소설은 국민의 나침반"[16], "소설은 국민의 혼"[17] 등 소설과 관련한 신채호의 언급은 신채호의 한글 의식을 설명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 소설을 국민의 혼 혹은 국민의 나침반으로 규정했던 신채호의 소설관을 신채호가 한글 소설을 쓴 사실과 연관 지으면, 신채호가 한글을 당대 시대가 요청하는 민족통합에 적합한 문자로 보았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채호가 소설의 의의에 대한 글을 발표할 즈음, 그가 순한글로 발표한 소설은 「익모초」가 유일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론적 설명은 그 근거가 확고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신채호의 한글 의식을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소설 장르와 한글은 관습적으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신채호의 한글 쓰기가 이중적 문어 상황에서 부여된 한글의 사용 영역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

15) 『언문』에 실린 한문구 중 공슈릭공슈거(空手來空手去), 립츄지지(無立錐之地), 소이연(所以然), 어시호(於是乎), 어ᄎᆞ어피(於此於彼), 역여시(亦如是), 역ᄌᆞ이교지(易子而教之), 하의ᄉᆞ(何意思) 등은 『조선어사전』(1938)과 『큰사전』(1957)에 단어로 수록되었고, 하상견지만야(何相見之晩也)는 『조선어사전』에만 수록되었고, 무론모인(毋論某人), 무불원쳔리(不遠千里), 무호동즁리작호(無虎洞中狸作虎), 불쳥긱ᄌᆞ릭(不請客自來), 불언지즁(不言之中), 역디즉기연(易地則皆然) 등은 두 사전에 모두 수록되지 않았다. 이는 한문구의 관용화 정도에 대한 판단이 시대에 따라 그리고 편찬자에 따라 달랐음을 말해준다.

16) 신채호, 「談叢: 小說家의 趨勢」, 『대한매일신보』, 1909.12.2.

17) 신채호, 「近今 國文小說 著者의 注義」, 『대한매일신보』, 1908.7.8.

전근대 시대부터 대부분의 소설이 한글로 쓰였기 때문에 근대 초의 이중적 문어 상황에서도 한글 글쓰기는 자연스럽게 소설의 장르적 특징으로 인식되었다. 『대한매일신보』가 소설을 연재하면서, 국문판과 국한문판 모두에서 한글 표기만을 했던 것은 이러한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한글 글쓰기를 소설의 장르적 특징으로 인식했다면, 소설을 쓰기로 한 이상, 한글 글쓰기는 어문 사상이나 의지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채호가 소설을 국민 계몽과 통합에 적합한 수단으로 본 것을 신채호가 한글을 국민 계몽과 통합에 적합한 문자로 봤다는 것과 등치시킬 수는 없다.

이는 신채호의 문체적 선택과 지향의 의미를 근대 초의 이중적 문어 상황에 기반하여 파악해야 한다는 걸 말해준다. 이중적 문어 상황은 예상 독자에 따라 문체 선택이 달라지는 상황뿐만 아니라 장르에 따라 문체 선택이 달라지는 상황까지를 포괄한다. 신채호는 소설을 제외한 글쓰기에서 일관되게 국한문 글쓰기를 했고, 소설과 역사서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전기의 경우는 국한문으로 글을 썼고 이를 한글로 옮겨쓰는 과정을 거쳤다. 신채호가 이중적 문어상황을 의식하면서, 장르별로 국문과 국한문의 역할을 분명하게 나누어, 그에 맞는 글쓰기를 계획적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국문과 국한문의 역할 구분이 분명해지면서, 같은 내용의 텍스트를 문체의 선택에 따라 서로 다른 장르로 구분하기도 했다.

> (9) 한놈이 일찍 내 나라 歷史에 눈이 뜨자 乙支文德을 崇拜하는 마음이 懇切하나 그에 대한 傳記를 짓고 싶은 마음이 바빠 미처 모든 글월에 考據하지 못하고, 다만 〈東史綱目〉에 적힌 바에 의거하여 필경 전기도 아니오 논문도 아닌 〈四千載 第一大偉人 乙支文德〉이라 한 조그마한 冊子를 지어 세상에 발표한 일이 있었더라 (「꿈하늘」, 『단재 신채호 전집』, 형설출판사, 1977, 183면)

신채호는 1916년에 쓴 소설 「꿈하늘」에서 1908년 당시 썼던 을지문덕 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작가는 『乙支文德』이 전기도 아니고 논문도 아닌 그 중간의 어떤 것이라 말한다. 이 언급은 서론과 결론 부분을 따로 둔 텍스트 구성상 특징을 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乙支文德』을 국문이 아닌

국한문으로 저작한 이유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신채호는 국한문으로 『乙支文德』을 지어 이를 출판했고, 이를 한글로 옮긴 국문판은 『을지문덕젼』으로 출간되었다.

이때 국문판 출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문판의 제목을 '을지문덕'이 아닌 '을지문덕젼'이라 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국문판 제목에만 '-젼'을 붙이는 방식의 제목 짓기는 「東國巨傑 崔都統」과 「동국에 뎨일영걸 최도통젼』, 「水軍 第一偉人 李舜臣」과 「슈군의 뎨일 거룩ᄒᆞᆫ 인물 리슌신젼」 등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문과 국한문의 상보적 관계를 의식한 제목 짓기로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전기를 국문판 신문에서는 '-젼'이란 표지를 붙여 '소설'란에 배치한 반면, 국한문판 신문에서는 '偉人遺蹟'란에 배치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중적 문어 상황에서 한글 글쓰기가 소설의 장르적 특징임을 의식한 배치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내용의 텍스트를 문체 선택에 따라 다른 장르로 인식하는 것은 이중적 문어 체계에서 국문과 국한문의 역할 구분이 견고했음을 말해준다.

신채호는 『大韓每日申報』와 『대한ᄆᆡ일신보』를 함께 발행하며 이중적 문어 상황에 대응하고자 했던 대한매일신보사의 방침과 같은 맥락에서 국문과 국한문을 적절히 활용했다. 국문과 국한문이 상보적으로 병존할 때에야 시대가 요구하는 민족통합에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1908년 순국문 잡지인 『가뎡잡지』의 복간을 주도하고 여기에 순국문 소설 「익모초」를 게재한 것 역시 그러한 판단에 따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국문과 국한문의 상보적 역할에 대한 인식은 국한문 원문 텍스트와 국문 번역 텍스트의 비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임상석은 을지문덕 전기의 저술에서 확인되는 신채호의 국문 모색에 대해 논의하면서, "서문과 범례를 생략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국문판의 문제의식은 원본에 비해 제한된다. 표기에서 한문을 배제할 경우, 정론과 학문의 영역에 한계가 올 수 밖에 없었던 당대의 언어 분할을 보여주는 실례"[18]라고 했는데, 국한문판과 국문판의 이런 차이는 이중 문어 체계에서 국문 텍스트와 국한문 텍스트의 역

할상 차이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텍스트의 구조적 차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국한문 원문과 국문 번역문의 내용상 차이에서도 국문과 국한문의 역할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10) 『乙支文德』과 『을지문덕젼』의 비교

ㄱ, 且薩水의 役은 一國興亡의 機어ᄂᆞᆯ 乙支文德이 戰코져ᄒᆞ면 全國이 皆戰ᄒᆞ며 乙支文德이 退코져ᄒᆞ면 全國이 皆退ᄒᆞ고 乙支文德이 詐降ᄒᆞ야도 上下가 其詐降을 不疑ᄒᆞ니 盖君主의 信用에 專홈과 國民의 信賴에 深홈이 如此ᄒᆞᆫ즉 是其出將入相의 位에 居ᄒᆞ고 內修外攘의 策을 講ᄒᆞ야 (『乙支文德』, 광학서포, 14면)

ㄴ. ᄯᅩ 살국ㅅ ᄊᆞ홈은 일국의 흥망이 ᄃᆞᆯ니엿거ᄂᆞᆯ 을지문덕이 ᄊᆞ호고져 ᄒᆞ면 젼국이 다 ᄊᆞ호고 을지문덕이 물너 가고져 ᄒᆞ면 젼국이 다 물너가며 을지문덕이 거ᄌᆞᆺ 항복ᄒᆞ고져 ᄒᆞ면 젼국이 다 그 거ᄌᆞᆺ 항복ᄒᆞ고져 홈인 줄을 의심치 아니ᄒᆞ엿 스니 대뎌 인군의 밋음이 젼일홈과 ᄇᆡᆨ셩의 의뢰홈을 깁히 홈이 이러 ᄒᆞᆫ즉 그 밧기셔ᄂᆞᆫ 대장이 되고 안에셔ᄂᆞᆫ 졍승이 되여 안으로 졍ᄉᆞ를 닥고 밧그로 뎍국을 방어ᄒᆞᄂᆞᆫ 계칙을 강구ᄒᆞ야 (『을지문덕젼』, 광학서포, 8면)

국한문 텍스트와 국문 텍스트의 비교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국한문의 한자어와 국문의 한자어를 달리 설정하고 있는 점이다. “專 = 젼일, 盖=대뎌, 將=대장, 策=계칙, 講=강구” 등과 같이 일음절 한자를 이음절 한자어로 교체하는 것은 국문 텍스트에서 일반화된 한자어를 사용하는 사례로 자주 언급된 바 있다. 이외에 “國民=ᄇᆡᆨ셩, 信賴=의뢰” 등처럼 이음절 한자어를 다른 이음절 한자어로 대체하는 예도 있는데, 국문 텍스트가 한자 표기의 뒷받침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문 텍스트가 더 일반적인 한자어를 선택하였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밑줄 친 ‘國民’과 ‘ᄇᆡᆨ셩’의 대응은 일반성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국민정신’과 ‘국혼’을 심기 위한 전기 저술에서 핵심 개념어인 ‘국민’을

18) 임상석, 「신채호의 영웅서사 역술과 대한제국기 언론매체의 국문 모색: 을지문덕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60, 우리어문학회, 2018, 175면.

국한문 텍스트에서만 사용하고, 국문 텍스트에서는 전근대적인 용어인 '백성'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의도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선택에는 새로운 개념어를 국문으로 쓰는 것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국문 텍스트 독자와 국한문 텍스트 독자에 대한 기대의 차이가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2년 뒤인 1910년에 『대한미일신보』에 실린 「동국에 뎨일영걸 최도통젼」에는 국한문 텍스트의 '國民'이 '국민'으로 제시되어 있다.

(11) 「東國巨傑 崔都統」과 「동국에 뎨일영걸 최도통젼」의 비교

ㄱ. 凡此七百餘年 歷ᄉᆞᄂᆞᆫ 只是 蠢蠢ᄒᆞᆫ 奴隸頭腦로 充塞ᄒᆞᆫ 歷史니 此七百餘年 歷史를 讀ᄒᆞ미 我가 我國民을 爲ᄒᆞ야 哀號의 聲이 地球를 動ᄒᆞᄂᆞᆫ도다 然則 此七百餘年 歷ᄉᆞ上에ᄂᆞᆫ 果然一三個人도 能히 國家의 精神을 發揮ᄒᆞ여 拜外의 頑夢을 打破ᄒᆞ고 我檀君子孫의 眞面目을 見ᄒᆞᆫ 者ㅣ 無ᄒᆞᆫ가 (「東國巨傑 崔都統」, 『대한매일신보』, 1909.12.10.)

ㄴ. 이 칠빅여년 력ᄉᆞᄂᆞᆫ 다만 쥰쥰 우미ᄒᆞᆫ 노례의 완미ᄒᆞᆫ 졍신으로 치운 력ᄉᆞ이니 나ᄂᆞᆫ 이 칠빅여년ㅅ동안 력ᄉᆞ를 보ᄆᆡ 우리 국민을 위ᄒᆞ여 통곡ᄒᆞᄂᆞᆫ 소릐에 디구가 진동ᄒᆞᆷ을 씨ᄃᆞᆺ지 못ᄒᆞ겟도다 그런즉 이 칠빅여년 력ᄉᆞ에ᄂᆞᆫ ᄒᆞᆫ두 사ᄅᆞᆷ도 능히 국가의 졍신을 발젼ᄒᆞ여 외국을 슝빙ᄒᆞᄂᆞᆫ 완만ᄒᆞᆫ ᄭᅮᆷ을 타파ᄒᆞ고 우리 단군ᄌᆞ손의 춤 면목을 나타나게 ᄒᆞᆫ 쟈ㅣ 아조 업ᄂᆞᆫ가 (「동국에 뎨일영걸 최도통젼」, 『대한미일신보』, 1910.3.6.)

「동국에 뎨일영걸 최도통젼」에서 '國民'을 '백성'이 아닌 '국민'으로 쓴 데에는 '국민'이란 개념어가 일반화되었다는 판단뿐만 아니라, 이 전기의 독자가 신문 독자임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이외에 (10)과 (11)에서 보인 전환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기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거나 새로운 표현을 보충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는 독립적 텍스트로서 국문 텍스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

(11)에서는 '哀號=통곡, 發揮ᄒᆞ여=발젼ᄒᆞ여' 등처럼 한자어를 다른 한자어로 대체하거나 "拜外의 頑夢을=외국을 슝빙ᄒᆞᄂᆞᆫ 완만ᄒᆞᆫ ᄭᅮᆷ을"처럼 의미가 압축된 한자어를 풀어쓰는 경우 이외에도, "哀號의 聲이 地球를 動ᄒᆞᄂᆞᆫ도다=통

곡ᄒᆞᄂᆞᆫ 소릐에 디구가 진동ᄒᆞᆷ을 씨ᄃᆞᆺ지 못ᄒᆞ겟도다"나 "眞面目을 見ᄒᆞᆫ 者ㅣ 無ᄒᆞᆫ가=춤 면목을 나타나게 ᄒᆞᆫ 쟈ㅣ 아조 업ᄂᆞᆫ가"나 "蠢蠢ᄒᆞᆫ 奴隸頭腦로 充塞ᄒᆞᆫ 歷史=쥰쥰 우ᄆᆡᄒᆞᆫ 노례의 완미ᄒᆞᆫ 졍신으로 ᄎᆡ운 력ᄉᆞ" 등처럼 표현을 추가하여 문장을 재구성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국문 텍스트의 독자성이 강화되는 변화는 (8)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국한문 텍스트에 한문의 어조사 등이 최소화되면서 국한문 텍스트가 한문 산문의 격식에서 벗어나는 변화와 함께 한다. 국한문의 번역인 국문 텍스트가 독자적 텍스트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국한문 텍스트가 한문의 격식을 벗어나 우리말 텍스트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변화는 결국 국한문과 국문의 이중적 문어체계를 일원화하는 문제의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국한문에서 한문 산문의 격식을 유지했던 신채호가 국한문과 국문의 이중적 문어체계를 일원화하는 실천에 일찍 뛰어든다는 사실이다. 대한제국기에 이중적 문어 상황에 따라 이루어졌던 신채호의 글쓰기는 한일병합 이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데, 이는 이중적 문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모색과 연동되어 있다. 신채호는 이중적 문어 상황을 단일화하는 흐름을 일찍 간파하고 자신의 글쓰기를 통해 단일 문어의 구상을 구체화했던 것이다.

3. 이중적 문어 체계의 단일화와 신채호의 문체적 선택

1) 이중적 문어 체계를 단일화하려는 시도

이중적 문어 체계를 단일화하는 방향은 순국문으로의 단일화와 국한문으로의 단일화라는 두 방향이 있을 수 있다. 순국문으로의 단일화는 문장을 한글로 쓰는 데 머물지 않고,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꾸는 문체 개량을 시도하기도 했는데, 문체 개량의 방향은 주시경의 문체적 실천에서 확인할 수 있다.[19] 국한문으로의 단일화 역시 근대 초 국한문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의 단일화는 아니었다. 이는 국한문 문장을 국문 문장과

융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 단일화한 국한문은 국문 문장의 문체에 근접하면서 한자를 혼용하는 현대적 의미의 국한혼용문에 가깝다. 한글의 사용상 편리성과 민족정신의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국문 문체에 근접한 문장에 한자를 혼용한 데에서, 한글만으로 완전한 글쓰기를 할 수 없다는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12) 然而國漢文의 關係를 皮解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煩雜ᄒᆞᆫ 漢文은 全廢ᄒᆞ고 簡易ᄒᆞᆫ 國文만 收用ᄒᆞᆷ이 便宜ᄒᆞ다 ᄒᆞ니 此ᄂᆞᆫ 그 詳細ᄒᆞᆫ 裏由의 密接ᄒᆞᆫ 關係를 不知ᄒᆞᆷ이로다 何者오 我國文은 原來 一般人民의 純粹ᄒᆞᆫ 語音으로 組織되야 個字의 意味가 無ᄒᆞᆷ으로 漢文과 併用ᄒᆞ여야 비로소 解繹이 分明ᄒᆞ니 萬一 漢文과 調和키 不能ᄒᆞ면 엇지 言語上 說明을 得ᄒᆞ리오. 假令 孝悌忠信과 仁義禮智ᄅᆞᆯ 한갓 音으로만 人民을 敎育ᄒᆞᆯ딘ᄃᆡ무샴 意味가 其 中에 含有ᄒᆞᆫ지 確知티 못ᄒᆞᆯ디라. (한흥교, 『대한유학생회학보』1, 1907.3.3.)

위처럼 국문의 속성적 한계, 즉 어음으로 조직되어 각 글자의 의미가 없는 한계를 부각하게 된다면, 국한문은 해석의 분명함이 요구되는 글쓰기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어 양식이 된다. 인쇄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국한문에 국문을 부기하는 시도를 한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속문 중 주목할 것은, 최경봉의 논의[20]에서 지적되었듯이, 유길준과 박승빈이 『노동야학독본』과 『언문일치 일본국 육법전서』에서 선보였던 훈독식 국한문이다. 이는 국문과 국한문의 이중적 문어 체계를 단일화하는 방안으로서 의미가 있다.

『노동야학독본』의 문장은 노동자 교육을 위해 고안한 교육용 문장이고, 『언문일치 일본국 육법전서』의 문장은 법률서의 번역을 위해 고안한 문장이지만, 이러한 시도는 이후 문어의 단일화 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컸다.

---

19) 주시경 문법서의 한글화 과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최경봉, 「주시경 문법서의 한글화 과정과 ≪조선 말갈≫」, 『국어학』 99, 국어학회, 2021, 35-73면.'을 참조할 수 있다.
20) 최경봉, 「근대적 문어 양식의 성립과 국한문의 규범화」, 『국어학』, 2020, 27-65.

(13) 유길준과 박승빈의 훈독식 국한문

ㄱ. 자식되야 어버이에게 孝효도ᄒᆞ며, 臣신하되야 님금에게 忠츙셩ᄒᆞ고, 어룬되야ᄂᆞᆫ 어린이를 養길으고 敎가라치는 일이 皆다 各각기 한 사람의 직분이니라 (유길준, 『노동야학독본』, 제5과, 1908)

ㄴ. 會社가 아니고 商號 中에 會社임을 示보이는 文字를 用쓰ㅁ을 得으ㄷ지 못함 會社의 營業을 讓受한 時쌔에라도 亦쏘한 同가틈. (박승빈, 『言文一致 日本國六法全書』, 商法 第三章 商業登記 第十八條, 1908)

(13ㄱ)은 국한문 문장처럼 보이지만, 부기한 국문을 통해 국문 문장으로 읽을 수 있는 문장이다. '養ᄒᆞ고, 敎ᄒᆞ는'을 쓰지 않고 '養고', '敎치는'을 쓴다는 것이 일반적인 국한문에서 벗어난 것이지만, 한자 '養, 敎'가 '길으-'와 '가라-'와 같이 어간의 의미를 보여주면서 한자 뒤에 나온 어미 '-고, -치는'과 결합해 읽도록 한 문장은 순국문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의미가 있다.[21] 어간의 의미를 한자를 통해 나타내는 방식은 (13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13ㄱ)과 (13ㄴ)의 차이는 (13ㄱ)이 순국문 문장에 한자를 섞어 쓴 것이라면 (13ㄴ)은 한자어(會社, 商號, 文字, 營業, 讓受)를 한자로 쓴 국문 문장에 한자를 섞어 쓴 것이란 점이다. 따라서 (13ㄱ)과 (13ㄴ)의 차이는 단일화한 문어에서 한자를 표기하는 원칙의 차이라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유길준과 박승빈의 훈독식 국한문은 이후 한글전용문과 한자혼용문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한다면, 신채호의 단일 문어 구상에 대한 논의는 신채호가 한글전용론과 한자혼용론 중 어떤 관점을 보이는지에 대한 논의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

21) 기존 연구에서는 이 문장을 국문으로 작성한 뒤 한자를 포함한 문장(김영민, 「근대계몽기 문체 연구: 유길준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48. 2009, 411면)으로 설명하거나, 노동자에게 국문으로 교육을 하면서도 교육 수준이 높아질 때 읽어야 할 국한문 교재를 읽을 수 있게 한자를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용 문장(최경봉, 「근대적 문어 양식의 성립과 국한문의 규범화」, 『국어학』, 2020, 47면)으로 설명했다.

2) 신채호의 단일 문어 구상

이중적 문어 상황을 극복하는 일은 곧 우리말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문장을 모색하는 일이었지만, 이러한 문제의식이 표출되던 시대는, (12)에서 볼 수 있듯이, 한글만으로 우리말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던 때였다. (4)에서 보았듯이, 신채호는 1924년의 논설에서까지 우리글의 발달이 '자기문학의 독립국'을 건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단정했다. 이는 이중적 문어 상황을 순국문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근대 초의 국한문을 우리말 문법에 맞게 개량하면서 우리말 문장에 한자를 섞어 쓰는 현대적 의미의 국한혼용문, 즉 한자혼용문이 만들어졌다. 192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서야 전통적 국한문을 벗어난 한자혼용문이 일반화되지만, 신채호의 지향은 1909년에 분명히 제시되고, 1910년대에는 자신의 글쓰기로 이를 실현하였다.

(14) 詩歌ᄂᆞᆫ 人의 感情을 陶融ᄒᆞᆷ으로 目的ᄒᆞ나니 宜乎國字를 多用ᄒᆞ고 國語로 成句ᄒᆞ야 婦人幼兒도 一讀에 皆曉ᄒᆞ도록 注意ᄒᆞ여야 國民智識普及에 效力이 乃有ᄒᆞᆯ지어날 ①近日에 各學校用歌를 聞ᄒᆞᆫ즉 漢字를 雜用ᄒᆞᆷ이 太多ᄒᆞ야 唱ᄒᆞᄂᆞᆫ 學童이 其趣味를 不悟ᄒᆞ며 聽ᄒᆞᄂᆞᆫ 行人이 其語意를 不知ᄒᆞ니 是가 何等效益이 有ᄒᆞ리오 是亦敎育界의 欠點이라 可云ᄒᆞᆯ지로다 一友人이 일즉 其著ᄒᆞᆫ바 ②愛國吟 丈夫吟 各一首를 余에 誦傳ᄒᆞᄂᆞᆫᄃᆡ 國語로 爲主ᄒᆞ고 漢字ᄂᆞᆫ 若干助入ᄒᆞ야 老嫗도 可解라 余ㅣ 此를 愛ᄒᆞ야 左에 錄ᄒᆞ노라 ③愛國吟曰 제 몸은 ᄉᆞ랑컨만, 나라 ᄉᆞ랑 왜 못ᄒᆞ노, 國家疆土 업셔지면, 몸 둘 곳이 어ᄃᆡ 밋뇨, 찰아리 몸은 죽더릭도, 이 나라ᄂᆞᆫ, 丈夫吟曰 長劍을 놉히 들고, 宇宙間에 徘徊ᄒᆞ니, 萬古興亡은 胷中에 歷歷ᄒᆞ고, 六大部洲ᄂᆞᆫ 眼中에 恢恢ᄒᆞ다, 아마도 丈夫의 得意秋ᄂᆞᆫ, 이 ᄯᅴ인 듯 (신채호[22], 「天喜堂詩話」, 『대한매일신보』, 1909.11.16)

위 글을 보면 신채호가 구상한 단일 문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는 (14①)에서처럼 시가(詩歌)가 국한문으로 작성되면서 부르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14②)에서는 그 해결 방법으로 국어를 위주로 하고 한자는 약간만 들어가는 가사 쓰기를 제안하였고, (14③)에서는 그러한 가사의 모범을

22) 이 글은 무서명으로 발표된 글이지만 저자 확정 논의 과정에서 신채호의 글로 의견이 모아졌다. 김주현, 「「천희당시화」의 저자 확정 문제」, 『우리말글』 33, 2005, 271-306.

보여주고 있다. 시가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만, 1910년대 신채호의 문체 선택 양상을 보면, 신채호가 위에서 제안한 글쓰기 방식을 전 장르로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신채호의 단일 문어 구상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소설이다. 신채호가 소설을 한자혼용문으로 쓰게 된 것은 한자의 포함 여부를 소설의 장르적 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이중적 문어 상황에서는 소설 장르의 특징으로서 한글 문장이 두드러졌다면, 단일한 문어 상황에서는 장르에 따른 문자 선택은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익모초」(1908)에서는 "건너 사랑방에서 대학지도ᄂᆞᆫ 지명명덕ᄒᆞ며 지신민ᄒᆞ며 지지어지션이라 ᄒᆞ고 흥이 나서 읽다가 삼홍을 불우는 소리에 글소리를 쑥 ᄉᆞᆺ치고…"처럼 한문 경전을 읽는 대목을 서술할 때도 순국문을 고수하며 전근대부터 내려오는 소설 글쓰기 방식을 의식하던 신채호였지만, 1916년의 「꿈하늘」에서는 한자혼용문으로 소설을 썼다.

(15) 신채호 소설에서의 한자혼용문

ㄱ. 乙支 선배의 이 말이 그치자마자, 하늘에 붉은 구름이 일어나 스스로 글씨가 되어 씌었으되 「옳다, 옳다. 乙支文德의 말이 참 옳다. 肉界나 靈界나 모두 勝利者의 판이니 天堂이란 것은 오직 주먹 큰 자가 차지하는 집이요、주먹이 弱하면 地獄으로 쫓기어 가느니라.」하였더라. (「꿈하늘(夢天)」, 1916, 『단재 신채호 전집(하)』,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형설출판사, 1977, 183면.)

ㄴ. 上帝 가라사대 『오! 미리야。너는 智勇이 兼備한 鬼物이니 長策이 있거든 말하여라.』
『地上의 民衆을 대개 두 部分으로 나눌 수 있으니、(一)은 強國의 民衆이요 또 (一)은 植民地의 民衆이올시다. 強國의 民衆은 아주 그 惰力的의 愛國心을 가진 동시에 國을 支配階級의 國으로 誤認하여 支配階級의 勢力을 擴張 增進케 하는 일을 愛國으로 誤信하여 그 愛國心이 僞愛國心이 되고 말았읍니다. (…) 彼等의 고픈 배가 다시 이 利益 없는 虛榮에 불러져 우리가 비록 몇 十年 동안 彼等의 피를 빨아 먹어도 아픈 지를 모를 것이요… (「龍과 龍의 大激戰」, 1928, 『단재 신채호 전집(하)』,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형설출판사, 1977, 279면)

공식 지면을 통해 발표된 소설은 아니었지만, 신채호가 「꿈하늘」에서, 국한문과 국문의 문체를 융합한 한자혼용문, 즉 "國語로 爲主ᄒᆞ고 漢字ᄂᆞᆫ 若干 助入ᄒᆞ야 老嫗도 可解"할 수 있는 문장으로의 단일화를 시도한 것은 당시의 문어 상황을 고려할 때 발 빠른 전환이었다. 신채호는 「꿈하늘」에서는 국문 문체에 한자어만 한자로 표기한 한자혼용문을 선보였으며, 「꿈하늘」에서 보인 한자혼용문은 이후의 글쓰기로 이어졌다.

(15ㄴ)에서는 '國家'라는 이음절 한자어를 '國'으로 대체한 것, '僞愛國心'과 같은 조어를 한 것, '彼等'과 같은 대명사를 사용한 것 등처럼 국한문체를 일부 벗어나지 못한 면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신채호의 문장은 근대 초의 국한문에서 현대식 한자혼용문으로의 전환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때 흥미로운 점은 근대 초 한문을 완전 해체하는 글쓰기를 주저했던 신채호가 현대식 한자혼용문으로의 전환을 앞장서 실천했다는 사실이다.

대한제국 시기 신채호는 한문의 격식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한문의 해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모색을 했지만 통일적인 국한문체의 전망을 제시하지는 못했었다. 그러나 1910년대에 신채호는 현대식 한자 혼용문으로의 문체적 전환을 이루는데, 이러한 한자 혼용문은 15세기 『용비어천가』의 한자 혼용문에서 비롯한 것이다.

유경민[23]은 제임스 게일이 1925년에 펴낸 국한혼용문 번역 성경이 근대초의 국한문에서 벗어난 것임에 주목하면서, 정착된 한자어만 한자로 적고 고유어로 쓰이는 단어들은 굳이 한자어화하여 한자로 표기하지 않은 게일의 번역 성경을 『용비어천가』의 글쓰기 방식, 즉 "聖神이 니ᅀᅳ샤도 敬天勤民ᄒᆞ샤ᅀᅡ 더욱 구드시리이다 님금하 아ᄅᆞ쇼셔 落水예 山行 가 이셔 하나빌 미드니잇가(제125장 52ㄱ)와 같은 글쓰기 방식과 연결 지어 논의한 바 있다. 그런데 유경민이 용비어천가식 국한혼용문이라 한 문장의 한자 활용 방식은 근대 어문개혁 이전에도 모색된 바 있다.

23) 유경민, 「제임스 게일의 국한혼용문 번역 성경(1925)의 문체 연구」, 『국어국문학』 173, 2015, 5-47면.

(16) 근대 어문개혁 이전의 국한문 문체 모색

ㄱ. 大槪 人民이 잇는 則 반다시 言語가 잇고 言語가 이스면 반다시 文字가 이스나 그러ᄒᆞ나 言語만 잇고 文字 업ᄂᆞᆫ 國도 이스며 文字가 잇서도 其用 甚히 不便ᄒᆞᆫ 者가 多ᄒᆞ니…(유길준, 『세계대세론』, 1883)

ㄴ. 十一月 二十日 日本 時事新報에 일너시되 法國이 馬島로 더부러 講和ᄒᆞᆫ 일은 임의 긔록ᄒᆞ여더니 近日에 ᄯᅩ 法京 來信를 보ᄆᆡ 쟝찻 죠이 결말ᄒᆞᆫ다 ᄒᆞ더라 (馬島事件, 『한성주보』, 1886. 2. 1.)

ㄷ. 年中行事者ᄂᆞᆫ 二十四節를 좃ᄎᆞ 時候를 일치 말며 時務를 預備ᄒᆞ며 失時之歎이 업게 ᄒᆞ미 가장 緊要되나니라 만일 二十四節를 料量치 못ᄒᆞ고 播種ᄒᆞ기를 時候에 몬져 ᄒᆞ면 苗芽가 나기 어렵고 時候에 나종 ᄒᆞ면 穀實이 不登ᄒᆞ며 時務를 預備치 아니ᄒᆞ면 臨時에 窘急之患이 잇셔 반다시 失時之歎를 免치 못ᄒᆞᆯ 거시니 銘心注意ᄒᆞᆯ ᄇᆡ니라 (『農政撮要』, 1886)

이를 보면 갑오개혁 이전인 1883년과 1886년에 쓰인 국한문이 갑오개혁 이후인 1895년에 나온 『서유견문』보다 고유어 실사를 국문으로 표기하는 빈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유길준 역시 1883년에 쓴 글에서, 고유어 실사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16ㄴ)에서 확인되는 '긔록ᄒᆞ여더니'이나 '장찻 죠이 결말ᄒᆞᆫ다'처럼 한자어를 한글로 쓴 예나 (16ㄷ)에서 확인되는 '失時之歎, 窘急之患'처럼 한문구를 그대로 쓴 예는 한문 글쓰기의 영향과 국문 글쓰기로의 지향이 착종되어 있는 상황임을 말해준다.

최경봉(2020)에서는 『서유견문』을 통해 보여준 유길준의 국한문 규범화 시도, 즉 모든 실사를 한자 및 한자어로 쓰는 국한문으로의 규범화는 맞춤법 및 표준어 등의 어문규범이 미비한 상황에서 나온 규범화 시도로 평가한 바 있다. 이처럼 유길준의 시도가 규범적 글쓰기가 가능한 상황을 조성한 면은 있으나, 이 규범적인 문장은 사실 칠서언해의 불규칙한 언해문을 한 방향으로 단일화한 것이었던 만큼 문장의 인위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신채호의 문체적 모색이 용비어천가식 및 근대어문개혁 이전의 한자 혼용문

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이 말해주는 바는 분명하다. 신채호는 문장의 자연스러움과 현실의 요구를 조화하는 문체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신채호는 1910년대의 어문 현실이 한문과 단절되었음을 확신했지만, 그의 글쓰기는 그가 한글만으로의 글쓰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음을 말해준다. 이때 한문과 단절된 어문 현실은 문체 선택의 근거가 되었고, 한글만으로의 글쓰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은 한자를 혼용하는 선택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신채호는 한글전용론이 아닌 한자혼용론에 따른 문체 선택을 했음을 알 수 있다.

3) 단일 문어 문체 선택의 언어이론적 논리

(7)에서 신채호는 한글을 "우리 文學의 勃興할 利器"로 규정하면서, 한글을 경시해 "國文學發達의 前路"를 막았었던 과거를 한탄한다. 이처럼 주체적 민족의식이 없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뜻을 저버린 것을 한탄하지만, 신채호는 주시경처럼 한글만으로의 글쓰기를 실현해야 함을 역설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태도는 문장의 자연스러움과 현실의 요구를 조화하는 문체적 선택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신채호가 우리말의 기원에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김병문(2020)에서 지적했듯이 신채호는 『조선사연구초』와 『조선상고사』를 통해 한자로 표기된 어휘들을 원래 조선의 고대어로 복원해 내고 이를 한국어 계통론 논의와 연결 지어 민족의 시원을 밝혀내려고 했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고대어 복원을 통해 민족의 시원을 찾고자 했던 신채호와 이중 문어 체계가 단일 문어 체계로 전환되는 국면에서 한자를 혼용하는 글쓰기를 선택했던 신채호를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

신채호의 어문관은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이두문을 고려시대의 국문(國文)으로 규정한 데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문과 대립적 개념인 국문이 시대에 따라 이두문이 될 수도 한글이 될 수도 있다면, 문자로서 한글을 민족의 시원 혹은 민족정신과 연결 짓는 건 어려워질 수밖에 없

다. 반면 우리의 옛말을 찾고 그 기원을 찾는 것은 우리 민족의 기원을 찾는 연구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신채호가 이두문으로 기록된 옛말을 복원하는 것은 옛말에 담긴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정신을 찾는 일이 된다. 문자가 아닌 언어를 민족정신과 연결 짓는 신채호의 어문관은 근대 언어학의 기본 가정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가 주필로서 작성에 관여했을 수도 있는 『대한매일신보』 사설, 「國文報幷刊」(1907.5.14.)은 국문 신문의 의미를 국민정신과 관련지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대목은 "惟此韓國은 自國의 國文을 不取ᄒᆞ고 他邦의 漢文을 專尙ᄒᆞᆷ으로 自國의 國語까지 失却ᄒᆞᆫ 者가 許多ᄒᆞ니 엇지 能히 自國精神을 保有하리오"에서 알 수 있듯이, '자국정신의 상실'이 한문을 숭상하여 국문을 취하지 않은 결과라기보다는 이로 인해 국어를 잃어버린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신채호가 한자 이전에 우리 민족의 고유 문자가 있었다는 주장과는 선을 긋고, 한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말을 표기할 수 없었음을 분명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문자와 언어를 분리해 인식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많은 연구자들이 신채호의 글로 추정하는 아래 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17) 今人이 皆國文을 本朝 世宗大王이 創造ᄒᆞᆫ 것으로 知ᄒᆞ나 實로 不然ᄒᆞᆫ지라 (…) 日本人이 近時에 地中를 掘ᄒᆞ다가 出雲族 古代文字를 發現ᄒᆞ야 東洋歷ᄉᆞ 辭典에 載ᄒᆞ엿ᄂᆞᆫᄃᆡ 其字體의 構造가 我國字와 酷肖ᄒᆞ고 又 마메아오 等 字가 有ᄒᆞ니 是가 三國時代에 漢文 輸渡ᄒᆞᆷ깃치 此文字도 卽 我國으로부터 移去ᄒᆞᆷ이 아닌가 然則 我國文은 盖檀君時代에 已有ᄒᆞᆫ 者인져. (劍心, 「國文의 起原」, 『대한매일신보』, 1909.12.29.)

위 글의 저자가 신채호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 위 글은 신대문자의 발굴 소식을 접하고 한글과 유사성을 보이는 신대문자가 존재했다면 문화 전수 관계상 이는 한반도에서 건너간 것일 것이기에 한글이 단군시대에 있었다고 해야 함을 말한 것으로 봐야 한다. 오히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신채호가 문자의 전래를 문화 전파의 차원에서 본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은 그의 소설에서도 확인된다.

(18) 글을 만드자면 梵書나 漢字나 契丹字에 참고하여 만들 것이나, 倫理와 道德의 條目은 남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風俗과 習慣에 맞추어 善과 惡의 표준을 세워 學理로써 說明할 뿐이다. (신채호, 「일목대왕의 철추」, 『단재 신채호 전집(下)』,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형설출판사, 1977, 304면)

위의 인용은 소설 「일목대왕의 철추」에서 일목대왕이 새 문자를 만들어 윤리와 도덕을 새로 세운다는 대목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새문자를 "범서나 한자나 거란자를 참고하여 만들 것"이라 한 점이다. 이는 신채호가 문자의 계통을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과 언어와 문자가 필연적 관련성이 없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신채호에게 우리말을 한글로 표기했는지 한자로 표기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 수 있다. 물론 (7)의 "世宗大王의 正音 字母는 吏讀에 比하면 그 音과 形이 完美할 쁜더러 그 學習이 더욱 便利하야 우리 文學의 勃興할 利器를 주엇스나"에서 볼 수 있듯이, 신채호는 '한글'이 이두문을 뛰어넘는 훌륭한 문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한글과 민족정신을 연결 지어 사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자를 섞어 쓰는 단일 문어를 구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신채호는 한글전용론이 아닌 한자혼용론의 입장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때 주목해야 할 점은 한글전용론과 한자혼용론의 대립이 부각된 것은 한글 글쓰기가 정착된 후였다는 사실이다. (4)에서 신채호가 언급했던 '우리글의 발달을 절규하였던 조선문법의 학자들'은 한글을 민족의 자부심이자 상징으로 의미화했고, 해방 후 우리글의 발달을 절규했던 목소리가 언어정책에 반영되면서, 한글전용은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런 국면에서 민족정신과 문자의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17) 한자를 썼다고 우리 민족정신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민족의 얼이 깃들어 있는 것은 그 언어이지 문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령 로마자를 國字로 삼는다 해도 우리 음 가치로만 발음해 쓰면 민족정신에 손상을 끼치는 일은 없어요. (장용학, 「나는 왜 소설에 한자를 쓰는가」, 『세대』16, 1963, 228면.)

"한자를 썼다고 우리 민족정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했던 장용학의 생각은 신채호의 어문관과 연결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 1960년대의 현실에서 신채호가 장용학과 같은 입장에 섰을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신채호가 문장의 자연스러움과 현실의 요구를 조화하는 문체적 선택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채호는 1960년대 현실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문체를 선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신채호가 1960년대를 (4)에서 언급한 "自家文學의 獨立國을 建設"한 때로 판단했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1960년대의 한국을 자가문학의 독립국이라고 판단했다면, 한글과 민족정신을 연결 짓는 것과 상관없이, 신채호는 한글전용을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4. 마무리

지금까지 한글 및 한자와 관련한 신채호의 어문관, 이중적 문어 상황에 대응하는 신채호의 문제의식, 이중 문어 체계를 극복하기 위한 신채호의 단일 문어 구상 등을 구체화하면서 신채호의 문체적 선택이 갖는 문체사적 의미에 대해 논의했다. 그런 점에서 이 논의는 신채호를 문체사적 관점에서 조명했다는 의미와 더불어 신채호를 통해 근대 국어 문체의 전환 동인을 구체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본고에서는 근대 문체사가 국문과 국한문의 이중적 문어 상황을 조성한 후 이를 단일 문어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전제로, 신채호의 저술 텍스트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 두 가지를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는 한글과 민족혼을 연결 짓는 어문 민족주의로 단순화할 수 없는 신채호의 어문 사상을 확인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문체 전환의 변곡점마다 신채호의 문체적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첫째, 본고에서는 신채호의 어문민족주의적 신념을 보여준 텍스트로 거론되던 「국한문의 경중」을 '한글'과 '한자'의 대립으로 확대 해석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근대적 국한문의 지향점, 즉 한문 문법이 아닌 국문 문법에 따라 쓰는 국한문으로의 지향을 밝힌 텍스트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신채호가 한글을 민족정신과 연결 지은 것이 아니라 한자 혹은 한글로 표기한 우리말, 즉 언어에서 민족정신을 찾았음을 지적하였다.

둘째, 본고에서는 '유길준의 문법적 국한문이 아닌 한문의 전통적 격식을 유지하는 국한문의 선택', '이중적 문어 상황에서 국문과 국한문의 의식적 선택', '문어의 단일화 국면에서 국문 문체에 한자를 섞어 쓰는 현대적 국한혼용문의 선택' 등 문체사의 변곡점에서 이루어진 신채호의 문체적 선택을 '텍스트 장르에 따른 문체적 선택'과 '문장의 자연스러움과 현실의 요구를 조화하는 문체적 선택'으로 설명하였다.

결국 이 글을 통해 확인한 것은 신채호가 한문의 해체와 자연스러운 문장의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끊임없이 현실의 요구를 의식하며 문체적 모색과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신채호가 한글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이를 민족정신과 연결 짓지 않음으로써 문체적 선택의 폭을 넓혔던 데에서도, 고대어 복원을 통해 민족의 시원을 찾고자 했으면서도 이를 현실 언어의 개량과 연결 짓지 않음으로써 관념적 어문민족주의로 나아가지 않은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김병문,「신채호의 고대사 기술에 사용된 언어학적 방법론 검토 - 조선사연구초와 조선상고사를 중심으로-」,『한국학연구』59, 2020.
김영민,「근대계몽기 문체 연구: 유길준을 중심으로」,『동방학지』148. 2009.
김주현,「「천희당시화」의 저자 확정 문제」,『우리말글』33, 2005.
_____,『계몽과 혁명 : 신채호의 삶과 문학』, 소명출판, 2015.
김희주,「신채호의 문학에 적용된 이중 언어의식 연구」,『어문논집』82, 민족어문학회, 2018.
문학과사상연구회,『근대계몽기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07.
유경민,「개화기 및 현대국어 형성기 국어의 고찰-국한혼용문과 현대 한국어 문체의 상관성」,『반교어문연구』38, 반교어문학회, 2014.
_____,「제임스 게일의 국한혼용문 번역 성경(1925)의 문체 연구」,『국어국문학』173, 2015.
이준환,「근대 전환기 국한문체의 형성과 자전, 사전, 학습서의 편찬」,『배달말』65, 2019.
임상석,『20세기 국한문체의 형성과정』, 지식산업사, 2008.
_____,「유길준의 국한문체 기획과 문화의 전환: 신채호, 최남선과의 비교연구」,『우리어문연구』43, 우리어문학회, 2012.
_____,「신채호의 영웅서사 역술과 대한제국기 언론매체의 국문 모색:을지문덕을 중심으로」,『우리어문연구』60, 우리어문학회, 2018.
최경봉,「근대적 문어 양식의 성립과 국한문의 규범화」,『국어학』94, 2020.
_____,「근대의 서사(書寫)와 유길준의 선택」,『애산학보』48, 2021.
_____,「주시경 문법서의 한글화 과정과 ≪조선 말갈≫」,『국어학』99, 국어학회, 2021.
한영균,「근대계몽기 국한혼용문의 유형·문체 특성·사용 양상」,『구결연구』30, 구결학회, 2013.

【Abstract】

Shin Chae-ho's Stylistic Choices and Their Significance in Stylistic History

Choi, Kyeong-bong*

This study proceeds from the premise that modern stylistic history is a process wherein a dual written-language situation of Gukmun (the Korean script) and Gukhanmun (the mixed Korean-Chinese script) was established and subsequently transitioned into a single written-language system. Under this premise, the paper examines the stylistic-historical significance of Shin Chae-ho's stylistic choices during this transitional phase. To this end, it elaborates on Shin's view of language and script with respect to Hangeul (the Korean alphabet) and Chinese characters, his critical awareness in addressing the dual written-language situation, and his conception of a single written language for overcoming the dual written-language system. Through this process, the paper clarifies two points. First, with the complementary roles of Gukmun and Gukhanmun in mind, Shin Chae-ho conceived a modern Gukhanmun as a common written style. Second, as a means of unifying the dual written language, he proposed a contemporary form of mixed-script writing (Gukhanhonyongmun)—one that in corporates Chinese characters into a Hangeul-based style. Furthermore, the paper shows that the stylistic choices Shin made at the inflection points of stylistic history were ultimately choices that harmonized textual naturalness with the practical demands of the time. These choices were: opting for a Gukhanmun that preserved the traditional formality of Classical Chinese rather than Yu Gil-jun's grammar-based Gukhanmun; consciously choosing between Gukmun and Gukhanmun under the dual written-language situation; and, in the phase of unifying the written language, adopting a contemporary form of mixed-script writing that incorporates Chinese characters into a Hangeul-based style.

Keywords: Gukmun(the Korean script), Gukhanmun(the mixed Korean-Chinese script), Modern written-language, Style, Yu Gil-jun, Korean-only Theory, Mixed Korean-Chinese Script Theory

접수일: 2026.06.30. || 심사일: 2026.08.07. || 게재확정일: 2026.08.14.

* Professor,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Wonkwang Univ.